

## 미국의 명예훼손법 : 손해배상의 판례분석

염규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언론법 교수

미국의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언론사가 소송사건에 승소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언론사가 지불하는 소송비용은 실제 소송에 패한 후에 직면하는 손해배상액보다 초과되는 예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1)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언론에 대한 위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손해배상지불은 지난 30여년의 미국 판례를 볼 때 미국의 언론법상 우려와 관심의 논쟁거리가 됨은 당연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심원의 고액 손해배상 평결과 이에 대해 미국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그 결정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명예훼손사건에서 배심원이 원고에게 100만불 혹은 그 이상의 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3차례 뿐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30여개 이상의 배심원평결은 100만불을 넘는 것이었고 언론사에 대한 평균 배심원의 평결액은 2백 20만불로 집계되고 있다.2)

1987년의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LDRC)의 조사에 의하면 1980~1986년의 기간에 재판을 한 166건의 명예훼손사건을 분석한 결과 81건은 10만불을 초과했고 15건은 50만불에서 100만불미만이었으며 32건은 100만불을 넘는 것이었다. 더욱이 50만불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28건이었고 이중 22건은 100만불이 넘는 것이었다.3)

1990년대에 있었던 보다 최근의 명예훼손배상의 본보기적인 사건을 일변해 보면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1991년 4월에 텍사스주의 한 배심원은 텔레비전방송국의 검사에 대한 탐사보도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국에 5천 8백만불의 명예훼손배상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Business week는 한 변호사를 「건방지다」고 표현한 기사로 인해 2백 63만불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1992년에 그 잡지의 발행인인 McGraw-Hill사는 손해배상판결 전액 외에도 이자까지 지불해야 했다.

199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KGO-TV(Channel 7) 방송국은 한 골동품거래상점이 훔친 물건들을 팔고 있다는 혐의를 보도한 대가로 2백 30만불의 명예훼손배상을 해야 했다. 1993년에는 뉴욕주의 버팔로의 WKBW-TV(Channel 7)와 그의 소유회사인 Cities Communications, Inc.는 Niagara Falls에 있는 한 식당 주인에 대한 1천 5백 40만불 배상 배심원 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993년 2월에는 한 십대의 살인사건보도와 그 살인사건 희생자의 가족에 대한의사의 코멘트를 포함한 보도 때문에 Florence Morning News는 2백만불의 손해배상지불 판결을 받았다.4) 가장 최근의 텍사스주에 있었던 연방배심원의 5백만불 손해배상판결은 명예훼손소송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1996년 3월 1일에배심원은 1994년의 NBC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된 명예훼손사건에서 NBC를 Tri Star Television 사에게 4백 50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리고 문제의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연방환경보호청(EPA)의 직원에 대해서도 50만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5)

「고액배심원판결(Megaverdicts)과 미국 법원이 언론에 대해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책임원칙을 적용하려는 사례가 점점 빈번해 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에 언론사의 명예훼손소송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언론사에 대해 약간의 호의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1992~1993년에 비해서 명예훼손재판이 1994~1995년에는 줄어 들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에 손해배상액은 크게 증가했다고 95년 2월에 발간된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의 연구서는 보고하고 있다.

「1992~1993년의 34건과 1990~1991년의 42건에 비해서 1994~1995년에는 단지 21개의 언론관련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을 뿐이다. 원고에 대한 13개의 배심원평결의

평균손해배상액은 1992~1993 년의 \$929,422 에 비해 지난 2 년동안에는 거의 1 백 50 만불에 달하고 있다.6)」

본 논문은 미국의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련한 판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론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서 미국의 판례를 그렇게 많이 다룰 수 없으나 대표적인,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한 과거에 논쟁이 된, 그리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판례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려고 한다. 미국 법원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통해서 언론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미 미국 명예훼손법에 관련된 손해배상의 계보원칙이나 종류와 헌법적인, 그리고 판례법적인 이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다뤘기 때문에(1996 년 여름호의 언론중재 참조) 이 논문에서는 언급치 않을 것이다. 다만, 독자를 위해 배경설명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간결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연결해서 언론사의 「맞고소」(Countersuit)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문제가 되는 판결이 언론사의 맞고소로 발전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석의 대상이 되겠지만 다음 겨울호의 논문에서 미국 명예훼손사건의 문제에 대한 보안점을 다룰 때 보다 깊이 논의를 하려고 한다.

#### A. Green v. Alton Tel. Drinting Co.7)

미국의 명예훼손사건 가운데서 손해배상판결이 언론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 사건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Alton Telegraph 신문이 개입된 명예훼손사건으로 Green v. Alton Tel. Drinting Co.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 조의 비평가이자 New York Times 의 칼럼니스트인 Anthony Lewis 는 이 사건의 교훈을 「명예훼손소송의 벌을 면하려면 논쟁거리가 되는 기사는 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8) 실제로 이 사건 후에 Alton Telegraph 신문의 편집장은 더 이상 공무원의 비행에 대한기사제보 등을 추적 취재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신의 생계와 가정을 거의 몽땅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극도로 눈치를 살피면서 행동을 하지 않겠는지요? 」하고 반문했던 것이다.9)

그럼 Alton Telegraph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피고언론사는 결국 파산신고 신청을 법원에 해야만 했는가?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명예훼손법 학자인 Rodney Smolla 교수의 주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Alton Telegraph…… 같은 조그만 신문이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최신의 국제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국방성 기밀문서를 제일 먼저 신문에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신문이 위치하고 있는 소도시안에서는 New York Times 나 Washington Post 가 하는 만큼의 중요한 역할, 즉 수정헌법 제 1 조의 제반 권익 옹호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부인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엘리트적인 사고일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의 보안관의 뇌물수수나 시정부의 개발지역 심사위원회 위원의 부동산투기나 공립학교선생의 어린 학생에 대한 신체적 유린 등에 대한 보도나 혹은 지역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수천의 기사들은 국가의 채무나 사우디 아라비아에 유도탄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CBS Evening News 방송의 최근 뉴스만큼이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했다.

Alton Telegraph 사건은 11) 1969 년 3 월 26 일기자들의 취재상의 메모에서 시작되었다. 미 연방 법무성의 Brian Conboy 에게 보낸 비밀 메모에서 Telegraph 의 Joe Melosi 기자와 Bill Lhota 기자는 일리노이주의 Alton 에 있는 James Green 건설회사의 소유자인 James Green 이 마피아단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12) 이 비밀 메모를 본 신문사의 편집장이나 다른 기자는 없었다. 이 메모에 따른 연방주택대출은행원의 수사로 인해 Green 은 주택건설 등 사업상의용자, 대출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는 목수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비밀 메모의 한 사본이 Green 에게 용자대출을 해준 Alton 에 있는 Piasa 저축 대출조합의 영업사장인 Robert L. DeGrand 의 손에 들어갔다. 이미 그 메모로 해서 DeGrand 는 Piasa 조합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유는 Green 으로 부터 용자의 대가로 뇌물 등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이었다.13) DeGrand 는 그 혐의에 대한 연방주택은행원의

수사가 Telegraph에서 나온 비밀메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는 1975년 2월 13일에 Telegraph와 메모를 작성한 두기자를 상대로 2백 27만불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소송을 냈다. 고소장에서 그는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문제된 서한의 진실이나 허위를 무모하게도 무시하고서 제 3자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14) 흥미있는 것은 연방법무성에 보낸 메모의 사본을 DeGrand가 입수하게 된 것인데, 이는 1966년에 연방의회가 제정한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한 정보청구에서였다.

Telegraph는 소송에 대한 반박응답이유에서 수사기관에게 범법행위혐의를 보고하는 메모는 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또한 이미 원고는 1971년에 Post-Dispatch 신문에 나온 관련 기사에서 그 메모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일리노이주의 1년한도의 명예훼손공소시한을 넘겼다는 것이었다. 1971년 9월에 Piasa의 폐사에 대한 기사가 Post-Dispatch에 나왔는데 그 기사는 DeGrand의 말을 인용하면서 「Piasa의 어려움은 Piasa에 범죄조직단체의 돈이 관련되어 있다」는 Alton 신문의 기자 Joe Melosi가 1969년 여름 연방법무성에 보낸 편지에서 발단이 되었다. 법무성은 수사를 시작했고... 연방주택융자은행원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다」고 했다.15)

Telegraph의 공소기각 제청을 Madison County 순회재판소는 거부했다. Beatty 판사는 「범죄사고를 주목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진정한 의도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절대특권의 보도를 적용할 수 없고 공소시효문제는 그 메모에 대한 원고의 인지유무에 대한 사실적인 논쟁이 있으므로 배심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977년 1월 25일 Green은 Telegraph와 관련 두기자를 상대로 문제의 비밀메모를 이유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그는 7백 4만 5천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80년 6월 8일 배심원은 총 9백 20만불의 손해배상을 Green에게 부여했다. 6백 70만불의 보상과 2백 50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인정했다.16) 배심원의 손해배상액 판결은 당시로서는 일간신문에게 가해진 가장 큰 액수였다. 특히 2백 50만불의 징벌보상액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손해배상판정에 직면한 Telegraph는 일리노이주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한편 그 판정을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길을 Green과 모색해 왔다. Green의 대답은 「신문사를 나에게 넘겨라」는 것이 타협의 조건이었다. 그리고 DeGrand는 56만불로 타협을 보자는 제안을 해왔다.17)

Telegraph는 순회재판소의 담당판사 Chapman으로 하여금 그 배심원의 판결을 번복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Telegraph의 변호인 Philip W. Tone은 Green이 문제된 메모를 소송개시 1년 이상 전에 알았으므로 고소시한이 만료됐으며 일리노이주의 명예훼손법에 따라서 그 메모가 명예훼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으며 또한 특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Chapman 판사는 판결의 번복, 재판을 다시 하라는,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줄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원래의 9백 20만불의 판결을 인정했다.

Telegraph에 남은 법적인 수단은 항소뿐이었다. 문제는 일리노이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항소를 하려는 민사사건의 패소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의 1과 1/2에 상당하는 보증계약금을 법원에 기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에 의하면 Telegraph는 천 9백 80만불을 기탁해야 했다. Telegraph가 보증계약금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때(Telegraph 전자산은 3백만불이었음) Green의 변호인 Rex Carr는 백만불의 보험료와 15년 동안에 걸쳐 매년 7만 5천불을 지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총 2백만불의 타협안을 내놓았다. 한편 신문사는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1980년 한해 동안만의 변호사비는 30만불을 넘었다. 그리고 Carr는 순회재판소로 하여금 손해배상결정을 집행하는 첫 단계로 Melosi 기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청구했다.18)

극단적인 조치로서 파산소송을 Telegraph는 강구했다. 이것이야말로 항소를 하는 기간에 Green의 신문사점유를 막으면서 신문을 계속 발행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파산선고재판소에 파산신고를 신청한 Telegraph는 한편 주고등법원에 손해 배상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항소했다. 항소이유 가운데는 첫째 원고의 피해는 문제의 명예훼손적인 언사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둘째 비밀메모를 제 3자가 다시 타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기자가 책임을 질 수 없고 셋째 1심 판사가 한 실수는 수백만불이 걸린 명예훼손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넷째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기의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 부당히 보상을 받았고 여섯째 보상적 손해배상인 6백 70만불을 증명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일곱째는 배심원의 9백 20만불의 판결은 원고측 변호인의 철저한 부당한 비행에 의해서 생긴 감정과 편견의 결과였으며 여덟째는 2백 50만불의 징벌손해배상은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과도한 것이 고법과 일반 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며 아홉째로는 연방법무성에 낸지 8년이 거의 지난 메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소시한을 이미 넘긴 것이며 마지막 열번째로는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 조항에 의하면 기사취재 중에 생긴 명예훼손적인 언사에 대해 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각주 19) 특기할 것은 지금까지 관여하기를 주저했던 언론 관련 단체들이 Telegraph 신문 지원찬조 이유서를 고등법원에 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Hew York Times, Chicago Tribune, 언론자유기자위원회, 미국기자협회(SPJ) 그리고 미국 신문편집인협회(ASNE)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DeGrand는 1981년 7월 16일에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12년동안 복수심에 불타 명예훼손소송을 추진했지만 Telegraph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운명을 했다.

1982년 1월 파산 법원의 Trabue 판사는 명예훼손사건이 주고등법원의 관할이며 그의 법원에 이관된 것은 단지 순회재판소에 계류중인 보충적인 절차 즉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원고의 노력이라고 했다. Green의 변호사들은 Telegraph 편집장과 Lhotka 기자에 대한 위자료 수급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Telegraph 신문을 재정비하려는 공동의 계획을 Green의 변호사인 Carr는 파산법원에 제출했다.

1982년 4월 7일 일리노이 제 5 지역주고등법원은 「전체사건이 항소를 포함해서 파산법원에 넘어갔다」고 판결을 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20) 항소준비차 시카고의 1급 합동법률 사무소에 25만불이 넘게 지불하고 선임한후에 남은 것은 항소를 받을 수 없고 대신 파산법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Telegraph 신문은 다시 Green과 타협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3일간의 협의 끝에 1백 40만불로 양측은 합의를 보았다.21) 이것 중 1백만불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Alton의 은행서 40만불을 대출해서 지불했다. 이 명예훼손사건이 끝났을 때 Telegraph가 변호사비용으로 낸 것은 61만 2천 7백불이었다.

Alton Telegraph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 Baltimore Sun 신문의 연방대법원 담당기자인 Lyle Denniston의 이 사건에 대한 평은 분명미국 언론사나 언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는 Washington Journalism Review (지금은 American Journalism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Telegraph 사건을 통해서 미 언론은 잃은 것이 많다고 했다. 즉 관련 신문사의취재상의 비윤리적인 비행이 없음에도 수백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당해야 하는 결과를 겪어야 했다. 사전 기사의 정보를 검토치 않고서 기사를 실은 것도 없으며 비밀 정보에 대한 질의여부를 관계 수사당국에 확인하려는 자세는 바로 언론의 윤리적인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정신의 발현이라고 Denniston은 주장하고 있다. 매우 「통상적인 올바른 뉴스취재방법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이 판결은 「기자들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사유가 되느냐는 매우 불안스러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22)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의 Post-Dispatch 신문은 Telegraph를 공익을 위해서 용기있는 언론활동을 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신문이라고 칭찬하고 「법원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아서는 결코 안되는 신문」이라고 사실을 통해 논조를 폈다. 23) 이 사실에 대한 Green의 변호사 Rex Carr는 반박의 편지를 내기를 「(비밀 메모를 쓴 Telegraph 기자들은) 직업적인 취재노력을 하지도 않고 특종기사를 구하려고 기대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언론의 자유라는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썼다.24)

이같은 상충적인 Telegraph 사건의 의미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언론사는 특히 소규모의 재정적인 언론사라면 명예훼손에 의해서 파산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줬다(Telegraph는 3만 8천의 부수를 가진 신문이었다). 그리고 비록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결코 나온 적이 없다고 해도 문제의 메모(부동산개발업자와

조직범죄단과의 연결가능성에 관한 기자들의 탐사 내용)가 9백 20 만불의 명예훼손 손해보상의 청구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메모가 정부기관에 보내진 것 자체가 명예훼손적인 언사의 유포(Publication)의 성립요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의 간부들이 그 메모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언론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메모를 작성해서 우승한 기자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으로 재산의 몰수에 직면해야 했다.

## B. Ginzburg v. Goldwater<sup>25)</sup>

이 명예훼손사건은 1964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으며 애리조나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Barry Goldwater가 원고로 제기한 것으로 공적인 신분의 공무원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sup>26)</sup>에서 나온 새로운 명예훼손법의 원칙인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해서 손해보상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보면 「실질적 악의」의 증명이 어느 정도 어렵고 배심원에게 명백하고 신빙성 있게 그 「실질적 악의」를 피고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명예훼손성립 요건의 엄격함을 파악할 수 있다.<sup>27)</sup>

Goldwater 사건은 Fact 라는 잡지의 1964년 9월~10월호에서 시작되었다. 「한 보수주의자의 무의식 : Barry Goldwater의 정신에 대한 특별호」라는 기사가 Fact 잡지에 두 부분으로 게재되었다. 그 잡지의 발행인 Ralph Ginzburg가 쓴 「Goldwater 인간과 위협」이라는 첫번째 기사는 Goldwater의 인격과 가정관계 등을 직간접으로 비난하는 적대적인 정치 비평 기사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었다. 그 기사의 중심적인 골자는 「Goldwater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병자라는 것」이었다.<sup>28)</sup> Goldwater호의 두번째 기사는 Fact의 편집장 Warren Boroson이 쓴 것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Goldwater」로서 Fact가 실시한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리고 응답한 사람들의 코멘트를 일부 인용한 것이었다.<sup>29)</sup>

Goldwater는 고소장에서 Fact 잡지 기사는 수없이 많은 「허위적인 추문에 관련한 명예훼손적인」 언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기사는 「실질적인 악의」를 갖고서 잡지에 실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들 기사로 인해 명예가 크게 손상 되었으며 일반 사람들의 경멸 조롱등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그는 2백만불의 징벌적인, 그리고 보상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sup>30)</sup>

피고들은 결코 문제된 기사가 「실질적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또한 진실,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그리고 원고가 미연방 상원의원이고 기사가 출판될 때 미국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기사는 보도특권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6년 뉴욕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재판에서 배심원은 피고에 대한 패소평결을 내렸다. 원고 Goldwater는 Ginzburg, Boroson과 Fact 잡지에 대해서 1불의 명목상 보상을 받을 것을, 그리고 Ginzburg에 대해서는 2만 5천불을, Fact 잡지에 대해서는 5만불의 징벌적 보상을 받을 것을 결정했다. Ginzburg와 Fact 잡지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제2순회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sup>31)</sup>

연방고등법원은 Goldwater에 대한 Fact기사가 「실질적 악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문기사, 책, 그리고 선거운동책자를 인용하거나 타인의 편지를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수집된 정보를 기사화하는 것이 실질적 악의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여러가지 요건중에 포함될 수 있다. 남의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라 해서 만일 그 반복자가 그 표현이 거짓이거나 본질적으로 허무맹랑한 것이거나 또는 인용된 사람의 진실을 그리고 그의 보도의 정책성을 의심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연방고등법원은 Ginzburg가 인용한 표현에 풍자를 집어 넣거나 타인의 말을 문맥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용을 해서 자기가 이미 정한 논조에 억지로 짜 맞추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동 법원은 타인 보도의 표현을 바꾸고 의미를 완전히 달리해서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생기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Ginzburg가 인용한 정신과 의사들의 응답편지를 혼합 내지 선택해서 작성한 기사가 과장이나 왜곡 됐다면 그것은 자신의 허위적인 기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연방고등법원은 판결했다.<sup>33)</sup>

보다 근본적인 「실질적 악의」의 증거로서 연방고등법원은 Curtis Publishing Co. v. Butts<sup>34)</sup>사건을 가장 유사한 예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Goldwater 기사는 결코 시간을 다투는 긴급뉴스(hot news)는 아니었다. 둘째, 피고들은 기사에 의해서 생기는 명예훼손적인 Goldwater에 대한 피해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사의 비난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함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잡한 단편적인 조사기법을 부주의하게 인용했음이 분명했다. 넷째, 피고들은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떠한 전문가로 하여금 문제된 기사를 평가하라고 부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 기사의 결론을 검토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다섯째, 설문조사의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기관에서 지적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들은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Goldwater 상원의원을 공격하려는 사전에 미리 계획된 의도가 있었음이 증거에 나왔다고 했다. 제 1 심재판에 나온 증거들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종합해서 분석 판단한다면 피고는 소송의 사유가 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인지하고서」 잡지에 실었으며 또한 「실질적 악의」에 의해서 나온 것임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했다.35)

연방고등법원은 특별손해배상을 제 1 심 재판에서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기각했어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거부했다. 「New York Times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과 여타 관련 판례는 (특별손해배상이 본질적인 명예훼손소송사건에서 청구증명을 해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New York 주의 명예훼손법은 무효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방고등법원은 말했다.36) Goldwater 상원의원에게 배심원이 명목상의 보상 손해배상과 「상당한」 징벌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뉴욕주 법상에 인정되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잡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잡지의 피해가 매우 줄어 들 것이므로 배심원은 원고에게 명목적인 손해배상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명목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고인 제출판사, 잡지 혹은 신문발행인이 다른 직업에 있는 명예훼손자가 당하는 추가적인 금전적인 책임을 수정헌법 제 1 조 조항상의 특별한 지위를 이유로 해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질적 악의를 갖고서 공무원이나 공적인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는 책, 잡지, 혹은 신문발행인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를 벗어난 것이다. 실질적 악의를 갖고서 허위를 발표하는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배심원이 내리는 평결은 두 가지 완전히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 (1) 명예훼손을 당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2) 비슷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같은 피해에서 보호하자는 것이다.」 37)

Goldwater 사건에 대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연방지방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인정함)은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를 거부했다. 한 언론법학자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판사들은 「실질적 악의」의 증명을 원고가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고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8)

### C.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9)

이 1967년 7월의 미국 연방 대법원의 명예훼손사건은 「실질적 악의」 원칙을 sullivan 사건의 공무원이라는 적용범위를 넘어 「공적인 인사」(public figures)로 확대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기할 것은 이 사건의 판결은 Associated Press v. Walker 사건과 함께 나왔다. 즉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본 논문의 초점과 관련해서 이미 전에 이들 사건의 명예훼손법상의 중요성을 다룬 적이 있으므로 (언론중재 1994년 가을호 참조) 「실질적 악의」와 「공적 인사」의 헌법적인 연방법원의 판결이론은 피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떠한 손해배상이 관련되었으며 일심에서 항소 상고에 이르는 재판과정을 주목하려고 한다.

Curtis Publishing Co. 사건은 Saturday Evenillg Post 지에 나온 기사에서 발단이 되었다. 이 기사에서 Wallace Butts가 1962년의 조지아대학과 앨러배머대학교 간의 미식축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 Butts는 조지아대학교의 체육부책임자로서 대학의 체육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다. 조지아대학교는 주립대학이었지만 Butts는 주정부가 아니라 사립 영리단체인 조지아체육협회의 소속 고용인이었다. 그는 전에 조지아대학교 풋볼코치를 했으며 코치들 사이에서 유망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코치경력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에 프로풋볼팀과 고용계약협상을 하는 중이었다. 40)

「대학 풋볼경기조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는 잡지 편집인의 다음과 같은 메모로 시작했다. 「시카고 White Sox가 1919년의 WorldSeries를 도박등의 게임조작으로 잃은 이래 이것처럼 충격적인 스포츠기사는 없었다. 조지아대학교가 앨러배머대학교와 게임을 하기 전에 Wally Butts는 앨러배머코치에게 조지아의 게임전술 방어전략 그리고 조지아대학팀이 갖고 있는 모든 중요한 비방등을 알려줬다.」기사의 전문은 애틀랜타의 보험상인인 George Burnett가 게임시작 약 1주일전에 있었던 Butts와 Paul Bryant 앨러배머대학교 풋볼코치사이의 전화통화를 전자고장으로 해서 우연히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Burnett는 「Butts가 조지아대학의 공격전법을 대략적으로 얘기했으며 어떻게 조지아가 방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Butts는 선수들과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기사에 쓰고 있다. 독자들은 Burnett가 그 통화내용을 메모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있다고 밝혀진 비밀의 구체적인 예를 기록하고 있다. 41)

기사는 게임과 그 게임에 있어서 선수들의 동작들을 기술하고 결론을 맺기를 「조지아 선수들의 일거일동이 분석되어 미로에 갇혀 있는 쥐들처럼 행동이 예상적이어서 선수들은 공포에 질린듯이 육탄적인 공세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동기사는 선수들과 경기장 주위의 관람자들은 앨러배머가 조지아팀의 경기비밀을 완전히 파악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 기사에는 Burnett가 후에 그의 통화내용의 메모를 조지아팀 코치 Johnny Griffith에게 제공한 것과 건강과 사업적인 이유로 해서 조지아 대학교의 체육부에서 Butts가 사임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 기사의 예견된 효과에 대해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Wally Butts가 다시는 어떠한 풋볼팀을 도와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학교와 (미 풋볼) 동남부협회 임원들에 의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게임들의 테이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선에서 끝날지 어느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이 끝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Butts는 조지아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500만불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500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Sullivan 사건이 나기 전에 소송이 개시되어 1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가 제기한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기사의 상당한 진실성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는 그 기사의 진실성과 어떻게 그 기사가 준비되었느냐에 관련지어 졌다. 그 증거에 의하면 분명히 Burnett가 Butts와 앨러배머 코치사이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대화의 내용은 매우 논란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Butts의 주장에 의하면 그 대화는 일반적인 풋볼 얘기였으며 Burnett가 엿들은 것은 어느 것도 경쟁팀 코치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재판의 전문 증인들은 Burnett의 통화메모와 게임의 필름을 직접 분석한 결과 Butts의 주장이 맞다고 했다. 그 게임에 대한 그리고 게임에 대한 선수들의 얘기에 대한 Saturday Evening Post지의 주장이 모순되었음이 드러났다.42)

그 기사작성에 대한 증거는 그 기사의 핵심이 되는 탐사취재의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잡지사는 책임 있는 조사취재의 기준에서 크게 이탈했으며 이것은 그 기사의 주장에 의한 파괴적인 결과를 볼 때 무모하고 악질적인 행위나 다름없는 특히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은 일반손해배상으로 6만불, 그리고 징벌손해배상으로 3백만불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46만불로 줄여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제 5 순회 연방고등법원에 Curtis는 항소를 했으나 2대 1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43)

연방대법원은(4명의 대법원 판사가 일치한) Harlan 판사의 의견에서 「언론 발행인들의 책임있는 취재 보도의 일반 관행」 원칙을 적용했다. 「즉 Butts 기사는 결코 시간이 중요한 요소인 뉴스사건이 아니었고 잡지의 편집인들도 그 심각한 주장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했음이 증거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차적인 주의조치 무시했다」 44) 대법원에 의하면 Burnett가 거짓수표사용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 있었음을 Saturday Evening Post지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제 3자의 확인도 없이 그 사람의 주장에 근거해서 그 기사를 그냥 실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전화통화를 엿들었을때 Burnett와 함께 있었다는 John Carmichael을 인터뷰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Burnett의 정보가 정확한 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게임의 필름을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게임정보가

드러난 후에 앨러배머가 그의 게임작전 등을 실제로 바꿨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사 담당 잡지기자는 풋볼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풋볼에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자기 기사의 정확성을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재판기간 중에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Burnett의 메모에 있는 정보는 게임필름에서 정보가 교환됐는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주목할 것은 담당 잡지 기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기사로 인해서 그 앨러배머 코치가 제소한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이미 깊숙이 관계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완전한 객관적인 취재의 정보원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Saturday Evening Post 지는 「치밀한 탐사취재」 방침을 세워서 그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멋진 폭로 기사를 하나 터뜨리라는 압력 등으로 해서 기사취재의 기본 양식을 어기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대법원은 주장했다. 「요컨대 책임감 있는 언론 발행인들이 통상적으로 준수하는 탐사 취재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이탈할 정도의 매우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대법원은 결론지었다. 45)

#### D. Gertz v, Robert Welch, Inc. 46)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Sullivan 사건보다는 못하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 Gertz 판결이다. 언론법변호사 Bruce Sanford는 「Elmer Gertz의 이름을 갖고있는 이 사건은 아마 Sullivan 사건 이후 20 세기에 있어 가장 빈번이 인용되는 명예훼손사건이다. 분명 Sullivan 국장 이후 현대 명예훼손법에 Elmer Gertz 보다 많은 영향을 준 원고는 지금까지 없었다」(각주 47) 그리고 Smo11a 교수는 미국의 「현대 명예훼손법의 골격의 대부분은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서 파생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48)

필자는 이미 「미국의 명예훼손법」이란 글을 통해서 Gertz 사건을 헌법적인 관점으로 쓴 바 있으므로 (1994년 가을호 언론중재 참조) Curtis Publishing Co. 사건에서처럼 Gertz의 손해배상에 관련한 사실개요 재판전개, 그리고 어떻게 거의 14년에 걸친 그야말로 이정표적인 사건이 1983년 5월 17일에 원고 Gertz가 손해배상액 지불 수표를 받기까지의 사실을 기술 분석코자 한다.49)

1968년 Ronald Nelson이라는 젊은이를 Richard Nuccio라는 시카고 경찰관이 총으로 쏘아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Nuccio는 제 2급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Nelson 가족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인 Elmer Gertz에게 의뢰해서 Nucci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Robert Welch, Inc.는 보수주의적인 단체 John Birch Society의 견해를 대변하는 월간지 American Opinion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에 잡지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운동을 전개하고 공산독재를 지원할 수 있는 전국적인 경찰력을 만들려는 음모를 경계했다. 이 같은 가상적인 위협을 일반에게 알려 줄 목적으로 American Opinion의 편집장은 Nuccio 경찰관의 살해재판에 관한 기사를 쓰도록 위촉했다. 50)

잡지에 정규기고가 쓴 「조작 : Richard Nuccio와 경찰에 대한 전쟁」이라는 기사가 1969년 3월에 나왔다. 그 기사는 Gertz가 「산업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연맹의 간부로서 이 단체는 미국 정부를 폭력으로 점거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고 썼다. Gertz를 또한 「레닌주의자」이고 「공산주의 앞잡이」라고 불렀고 그를 1968년의 민주당전당대회 기간중에 시카고 경찰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공격을 어느 단체보다 계획적으로 실행한 전국변호사조합의 간부라고 주장했다. 비록 Nelson 가족의 민사소송 변호인으로 Nelson의 사인에 대한 검시관 조사에 참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으나 Nuccio의 형사소송에 대한 어떤 부분에도 관여치 않았고, 언론기관에 Nuccio 경찰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잡지는 Gertz를 「조작」의 장본인이라고 묘사했다.

이들 표현들은 심각한 오류투성이었다. Gertz가 범죄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허위였다. 약 15년전에 그가 전국변호사조합의 회원이고 간부였었지만 그와 그의 조직이 시카고의 1968년 데모계획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물론 그가 레닌주의자나 공산주의

앞잡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도 전혀 없었다. 더구나 그는 「산업민주주의마르크스연행」의 회원도 아니었다.

American Opinion의 편집장은 Gertz에 대한주장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대신 기사에 덧붙인 소개 사실에서 기사의 필자는 「Richard Nuccio 사건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다」는 부록을 넣었다. 그리고 기사에 Gertz의 사진과 「공산단체의 Elmer Gertz, Nuccio를 괴롭히다」는 캡션을 달았다. 51)

Gertz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Robert Welch, Inc.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와 시민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별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기각하라는 피고의 주장에 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 법상 기사가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인 것이므로 특별손해배상을 소송 이유서에 밝힐 의무는 없다고 했다. 피고는 또한 약식결정신청에서 Gertz는 공무원 혹은 공인이며 기사가 공적인 관심에 대한 문제이므로 「실질적악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실질적 악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유로는 Gertz에 대한 기사내용의 허위를 알지 못했으며 기사를 쓴 필자의 명성과 전에 American Opinion에 기고한 필자의 글은 정확성과 신빙성에 근거했다고 잡지의 편집장은 진술했다. 52)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약식결정신청을 거부하면서 원고가 「실질적 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사실상 법원은 원고가 공무원과 그리고 공적인 인사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일리노이법상 정당한 사유가 피고에게는 없다고 했다. 배심원은 5만불의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배심원평결후에 지방법원은 다시 보다 더 숙고한 후 비록 원고가 공적인 인물 혹은 공무원이 아니라 해도 Sullivan의 「실질적 악의」원칙은 관련기사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므로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분명 이 결정은 1971년에 있었던 Rosen bloom v. Metromedia, Inc.53) 사건을 예견한 것이라고 하겠다. 54)

Gertz의 연방고등법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Rosen bloom 사건에 근거해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연방고등법원은 주장하기를 American Opinion의 편집인이 기사에 실린 주장의 허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진실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1974년 5월 4일의 판결에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Welch의 주장인 Gertz는 공무원 혹은 공적인 인물이므로 Sullivan 원칙으로 하급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라는 것을 일축했다. 즉 Gertz가 공무원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Gertz가 수년전에 시카고 시장이 임명한 주택위원회에 관여한 적은 있으나 기사가 나올 당시 급료를 받는 정부의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Gertz가 시체검시관의 조사에 입회했다는 것으로 해서 그가 「사실상의 공무원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그 같은 주장에 근거하면 「모든 변호사가... 법원의 직원이 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이라는 범위의 일반적인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다. 55)

Gertz가 공적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답하기를 그가 지역사회와 직업사회에서 오랜동안 활동을 해왔고 일반 사회단체나 전문 단체의 책임 간부를 역임한 적이 있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과 논문 등을 쓴 적은 있다. 비록 그가 어떤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해도 지역 사회에 일반적인 유명인이 된 것은 아니다. 재판에 관여할 잠정 배심원들 어느 누구도 Gertz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고 피고도 그 같은 반응이 예외적인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사회나 직업적인 단체에 관여하는 것이 Gertz를 모든 목적에 있어 공적인 인사가 되게 만들었다고 가버이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대법원은 주장했다.

「지역사회의 일반직인 명성이나 악명, 그리고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개인을 그의 모든 생활면에서 공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덧붙이기를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는 명예훼손사건에 관여해서 특별한 논쟁이 개인이 어떠한 성격으로 어떠한 범위로서 관여하고 있느냐를 판단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6)

이같은 기준에서 대법원은 판결하기를 Gertz는 공적인 인물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의 시체검시관의 조사역할은 매우 사소한 것이고 그것은 단지 변호사의 임무에 관련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Nuccio 경찰관의 형사재판에 전혀 관여치 않았고 언론과 어떠한

문제도 토의한 바 없고 인용된 적도 없다. 분명 그는 이 같은 공적인 문제의 소송돌이에 뛰어들지 않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공공의 관심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결국 제 1 심 재판에서 Gertz가 본 소송사건에 관한 공적 인사가 아니라는 결정은 옳았다. 따라서 「실질적 악의」 요건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제 1 심재판이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었다. 그리고 배심원이 과오 없는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고 피해의 증명없이 손해배상을 추정해서 부과했으므로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57)

연방지방법원에 환송된 후 제 2 차 재판에서 Gertz는 소장을 변경했다. 주의태만(negligence)과 「실질적 악의」를 피고가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보상적인 그리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Welch는 문제의 기사는 단지 정부문서에 나온 표현들을 반복해서 공표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조건적인 특권을 주장했다. 58)

1981년 4월 6일동안의 재판 후 배심원은 Gertz에게 10만불의 보상위자료와 30만불의 징벌위자료를 받을수 있다고 인정했다. 1981년 9월 4일 연방고등법원에 Gertz 승소판결이 상소되었다. Welch는 이전의 항소 상고를 통해서 기사에 대한 「실질적 악의」가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제 2 차의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실질적 악의」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되므로 더이상 책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이유를 폈다. 이른바 「law of the case」 이론이라는 원칙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다시 미연방고등법원에 항소가 되면 그리고 첫번째의 법원의 판사들과는 다른 판사들이 그 사건을 다시 맡아 처리하면 전의 판결문에 동의를 하든 안하든 첫번째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59)

Welch는 새로운 재판을 다시 하라는 연방대법원의 사건 환송은 손해책임이 있느냐는 문제와 보상위자료가 주의태만이론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0) 그리고 환송재판에서 1심 법원이 Welch가 「조건적인 특권」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일단 그 특권이 증명되면 1심 법원은 Welch 승소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했다.

연방고등법원은 Welch의 주장을 거부했다. Gertz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언론사에 의한 사적인 인물에 대한 책임의 지침과 공적인물에 대한 기준을 보다 상세히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다. 사실 「실질적 악의」가 증명됐느냐 하는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대법원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제 2 차 재판에 다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 이론을 거절했는데 이 이론은 제 1 차 재판시 제 1 심과 2 심의 판결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엄격한 과실 책임을 주법은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법에 있어 증거책임을 급격히 바꿨다고 연방고등법원은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Gertz 사건에서 나온 제반원칙에 의한 변화로 해서 제 1 차 재판의 법적인 기준을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61)

Welch의 조건적인 특권에 의한 기사 면책에 대해 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모임에 대한 기사로서 사적인 인물의 명예훼손적인 언사가 담겨진 것에 적용된다고 했다. 이 특권은 또한 정부의 공적으로 생긴 위원회의 보고서를 다시 공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재공표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혹은 이들 공무절차의 공정한 축소보고」에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 악의」를 갖고서 재공표를 하면 이 특권은 상실된다고 했다. 이 같은 공정보도 특권에 관한 제반 원칙을 적용하면서 연방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그 특권 적용을 「정부 행정절차의 보고에 근거해서 쓴 기사」에까지 확대했다고 했다. 62) 「발행인이 한 성명을 단지 보도하거나 공정히 전하거나 그 성명을 수정이나 왜곡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악의가 없는 한 보호된다. 한편 정부관공서 절차에 대한 기록에 들어있는 언사가 단지 자기의 연구의 일부분이거나 혹은 그 공문서에 들어있지 않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된다면 그 특권이 적용될 수는 없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언사의 재공표에 대한 책임문제는 공공문서 의존의 타당성에 대해심판 되어야 할 것이다」. 63)

문제된 기사에 입각해서 연방고등법원은 기사의 저자가 「정부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썼다고 밝혔다. 즉 기사는 정부문서를 보도한 것이 아니라 주로 기사의 근거자료 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조건적인 특권은 정부문서에 직접 대조해서 Gertz에 대해서 쓴 기사의 문장에 국한해야 했지만 제 1 심 법원은 전체의 기사에 대해 적용 했다고 했다. 전체 기사에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왜냐하면 그보다 기사는 오직 특정의 언사를 확인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64)

「실질적 악의」를 갖고서 기사가 잡지에 나왔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연방고등법원은 발행인은 「그 기사의 저자의 진실성 혹은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요약을 한다면 잡지의 편집인이 기사의 주제를 생각해서사람이나 조직을 공산주의자라고 이름 붙이는 이미 알려진 그리고 엉뚱한 성향을 지닌 작가를 구해 기사를 쓰게 했고 그 기사가 제출된 후 Gertz 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문구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의 해보지도 않고 더욱이 보다 명예훼손적인 정보를 이른바 작가의 「사실」에 근거해서 추가로 덧붙였다. 결국 기사는 Gertz 에 대한 언사의 진실 허위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썼다는 배심원의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65)

마지막으로 연방고등법원은 실질적인 피해의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적인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Welch 의 주장에 동의하지않았다. 사실 Gertz 가 실질적 손해를 증명했다고 고등법원은 결론했다. 그의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근심 당혹감 등은 그 기사로 인한 피해였다고 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의한 실제적 피해는 반드시 경제적 손실로만 측정될 수 없으며 개인적인 모욕 심리적인 고뇌와 고통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하급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 66)

연방고등법원의 결정이 있는 후 Welch 는 재심을 신청했고 고등법원전체판사(en banc)들이 할 것을 요구했다. 1982년 9월 15일 고등법원은 재심신청을 거부했다. 67) 1982년 12월 14일 Welch 는 미인방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다음해 대법원은 2월 22일 상고신청을 거부했다. 1983년 5월 17일 Gertz 는 손해배상전액 40만불을 지불 받았다.

「최초의 아이러니는 이전의 패소는 결국 보다 큰 승리를 뜻하게 되었다. 최초의 손해배상액 보다 8배나 많은 액수의 판결을 받았으니까. 모든 재판의 지연, 비용 불확실함 두통 그리고 고지가(재판의 종결을) 즐기고 있으니까 자비스럽게 잊혀지는 것이 있다」고 Gertz 는 회고했다.68)

#### E. Brown & Williamson V. Jacobson69)

이 1987년의 제 7 순회 연방고등법원의 명예훼손사건은 CBS 와 텔레비전 앵커맨인 Walter Jacobson 에게 총 3백 5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케 한 사건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방고등법원이인정한 어떤 손해배상액보다 4배나 큰 것이었다. 70) Jacobson 은 CBS 소유의 시카고에 있는 WBBM-TV 의 앵커로서 『Walter Jacobson's Perspectives』 라는 제목의 논조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담배산업을 얘기하면서 Brown & Williamson 회사가 제조하는 Viceroy 담배를 비난했다. 담배 회사들이 젊은이들을 흡연에 끌어들이려는 기도를 토의하면서 Jacobson 은 담배제조회사를 「사기꾼」이며 흡연을 「마약 포도주 맥주 그리고 성교」 등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했다.그는 「Viceroy 사기꾼」은 「사기꾼이라기 보다는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주장했다. 71)

Brown & Williamson 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고, 제 1 심에서 3백만불의 보상손해배상을, 그리고 2백 50만불의 징벌손해배상의 평결을 배심원으로 부터 받았다. 연방지방법원은 보상위자료를 1불로 줄이고 징벌위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72) 소송의 쌍방은 교차 항소를 했다. 연방고등법원은 문제의 Jacobson 의 언사는 사실적인 주장이지 의견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FTC 보고에 근거했으므로 공정보도특권으로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그 방송은 공정한 FTC 의 요약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Brown & Williamson 은 피고가 그 방송내용이 허위이고 실제로 그 진실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음을 명백하고 신빙성있게 증명했다고 고등법원은 결정했다. 「실질적 악의」의 가장 확고한 증거는 Jacobson 의 연구자가 극히 중요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사건이 시작된 후에 그 연구자는 「담배업체들이 어린이를 흡연에 끌어들이는」 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송당시에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은 없었다. 이 문서 가운데는 뉴스룸에 있는 Jacobson 과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한 18페이지의샘플스크립트, FTC 보고서의 요약서 그리고 취재보도 중에 한 인터뷰 메모 등이었다. 73)

보상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연방고등법원은 문제의 방송프로그램이 본질적인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일리노이주의 추정적 손해배상이론에 따라서 보상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증명치 못한다고 해서 보상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실제적 경제적 손실에 중점을 둔 손해배상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Brown & Williamson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이 명예훼손을 만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74)

1 백만불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밝히기를 그 방송이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TV 방송시장의 하나였다는 것, 신문에 낸 것이 아니고 4 번에 걸쳐서 2 백 50 만의 TV 시청자가 보았다는 것,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방송으로 일반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으며 방송국으로부터 「항상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선전되는 노련한 언론인에 의한 프로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텔레비전방송이었고 신문의 사실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은 보다 강력한 보다 초점을 맞춘 매체이다. 그것은 항상 명예훼손자를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오게 하며 메시지에 힘을 주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강한 명예훼손적인 언사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또한 TV 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사용한다」 고 법원은 강조했다. 75)

징벌적보상을 인정하는 배심원의 결정에 참고되는 여러가지 요건을 고등법원은 주목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이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은 이 명예훼손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둘째로 배심원은 피고의 재산정도를 고려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이 비슷한 명예훼손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결정 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한 고등법원은 배심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옳다고 했다. 즉 Brown & Williamson 이 입는 변호사비용은 136 만불이었고 CBS 와의 계약을 포함한 Jacobson 의 재산은 5 백만불에 달하며 CBS 의 순자산은 약 15 억불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Jacobson 에게 5 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 것은 그의 재산을 볼 때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Brown & Williamson 이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CBS 의 자산을 볼 때 CBS 에 대해 2 백만불 손해배상부과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배상은 미래의 행동에 어느 정도 제약적인 요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쉽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를 CBS 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고 법원은 말했다. 76)

#### F. Sprague v. Walter 77)

미국의 명예훼손 판례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손해배상판결이 지난 4 월 1 일에 원고가 피고언론사와 서로 공개되지 않는 금액으로 타협을 봄으로써 23 년에 걸친 소송이 끝났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를 했다. 그 명예훼손사건이 바로 Sprague v. Walter 이다. 총 2 천 4 백만불에 달하는 손해배상 지불의 판결을 받은 Philadelphia Inquirer 신문의 자회사인 Philadelphia Newspapers Inc. 회사의 변호사는 「신문의 운영에 위축효과를 미치는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험적이며 과도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78) 이 사건의 손해배상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2 천 1 백 50 만불이었다. 79)

물론 관례상 Philadelphia Inquirer 신문이 얼마를 원고에 타협조건으로 지불을 했는지는 비밀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수백만불은 됐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다. 80) 분명 이 관례없는 배심원의 최근 3 천 4 백만불의 손해배상판결은 미국의 기자와 편집인들에게 명예훼손사건의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81) 그럼 어떻게 해서 「실질적 악의」 원칙을 인정하는 미국 명예훼손법하에서 이 같은 고액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오고 있는가? Sprague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vening Bulletin 의 기자로서 기사 취재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펜실베이니아의 전화 도청 금지법 위반으로 1972 년 9 월에 유죄심판을 시법원에서 받았다. 이 때 관여한 검사는 Richard A. Sprague 오서 그는 Walter 에게 15 일에서 1 년에 걸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결국 Walter 는 Philadelphia Inquirer 로 직장을 옮겼다. 그가 쓴 기사가 Inquirer 신문에 연재물로 나온 것 중에 포함되었는데 그 기사는 Sprague 를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초속 경관들이 관련된 불법행위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Walter 는 또한 다른 Inquirer 기자와 함께 1963 년의 한 살인사건을 탐사취재를 하고 있었다. 지방검찰청의 살인수사책임자인 Sprague 가 그 사건을 수사했는데 결국 2 명의 혐의자를 석방했던 것이다.82)

살인사건의 재수사와 Walter 와 동료기자가 자기를 「중상모략」 를 하려한다고 해서 Sprague 는 그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Inquirer 신문은 1973 년 4 월에 그 살인사건에 관련한 혐의자 한 사람의 아버지가 Sprague 와 「매우 긴밀한」 사이라는 점을 근거해서 Sprague 의 수사중의 역할을 집중 분석하는 기사들을 신문에 실었다. 83)

Sprague 는 Inquirer 신문에 나온 기사와 사실등이 명예훼손적이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84) 10 년 후인 1983 년에 재판이 열렸고 Sprague 는 현재 수명의 명예훼손 원고를 변호한 바 있는 유능한 소송변호사가 되었다. 85) 약 8 주동안에 걸친 재판끝에 Sprague 는 4 백 50 만불의 손해배상을 배심원으로부터 받았다. 제 1 심 재판담당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문제된 기사의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고 관련 정보를 배심원이 고려할 것을 배제했다.86)

Philadelphia Inquirer 는 「기자가 믿을 만한 그러나 밝힐 수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구한 정보의 모든 증기를」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는데 포함시키지 말라는 제 1 심법원의 결정은 펜실베이니아의 정보원 보호법(Pennsylvania's Shield Law) 위반 등을 이유로 주고등법원에 상소했다.

주고등법원은 「제 1 심법원이 관련 증거를 배심원의 심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의 법적인 권리행사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룩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고 결정했다. 87) 더욱이 고등법원은 「피고가 주의 경보 및 보호법을 이용하는 것은 마치 <방패>를 갖고서 명예훼손소송을 피하는 것이므로 기자의 기사작성자에 취한행동이 합당한 것인지를 조사하려는 자기의 정당한 절차상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Sprague 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고 일축했다. 88) 결국 기자들에게 비밀적인 정보원로부터 구한 정보를 증언하지 못하게 한 이유로 해서 1 심 판결은 번복이 됐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환송을 했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주대법원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됐다. 89)

1990 년 다시 재판이 열렸다. 배심원은 Sprague 에게 3 천백 50 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총 3 천 4 백만불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1994 년 징벌적 손해배상은 2 천백 50 만불로 주고등법원이 줄였다. 90) 1996 년 1 월 주대법원은 피고 언론사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각주 91)Sprague 사건에 대해 언론자유 기자위원회의 Jane Kirtleel 변호사는 평하기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의 결과는 명예훼손법의 근본목적 즉 명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느끼게 한다. Sprague 가 비록 문제된 기사가 틀린 것이라는 주장을 가정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고했다. 92)

그러나 실제적인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특히 공적인 인물이 관여된 사건에서 대부분 손해배상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할 때 Sprague 사건 등의 고액판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배심원은 명예에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증거 없이 그 피해의 가상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당액의 보상을 줄 수 있다」 고 했다. 93) 추정적 손해배상과 덧붙여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적 인물이 관여된 사건에 흔히 증거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 악의」 를 증명하면 실질적 보상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명예훼손법이므로.

미국의 소송비용이 피고 언론사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매우 위촉적인 요소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추정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원고측에 가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Brown & Williamsaon 사건의 원고 변호를 맡았던 Martin London 의 주장은 반드시 원고에 대한 편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그는 말하기를 「추정적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서 명예훼손의 희생자가 변호사를 구하고 부유한 피고 언론사들의 잔꾀나 지연 등에 의한 소송전술에 대해 과감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경제적인 가능성을 주며 또한 적어도 재판에까지 가는 흔치 않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추정적 징벌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무능력한 사람들도 피해보상을 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94)

주

- (1) Richard M. Clurman, *Beyond Malice: The Media's Years of reckoning* 103(1990) .
- (2) *Id.*
- (3) Bruce W. Sanford, *Libel and Privacy* 431(2d ed.1996).
- (4) Barbara Dill, 「Libel Law Doesn't Work, but Can It Be Fixed?」 in Martin London & Barbara Dill, *At What Price? : Libel Law and Freedom of the Press* 36~37(1993) .
- (5) 「News Notes」 , *Media Law Reporter*, March 26,1996.
- (6) 「News Notes」 , *Media Law Reporter*, March 5, 1996.
- (7) 107 Ill. App. 3d 755, 8 *Media L. Rep.*(BNA)1345(1982) .
- (8) Anthony Lewis, *Make No Law :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 203 (1991) .
- (9) Kent Middleton & Bill Chamberlin,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70 (3d ed. 1994) (citation omitted).
- (10) Rodney A. Smolla, *Suing the Press* 78~79(1986) .
- (11)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Alton Telegraph case, see Thomas B. Littlewood, *Coals of Fire : The Alton Telegraph Libel Case* (1988). The author's analysis of the case of the Alton Telegraph is extensively based on *Coals of Fire*.
- (12) *Supra* note 11, at 57~58.
- (13) *Id.* at 65.
- (14) *Id.* at 94.
- (15) *Id.* at 73.
- (16) *Id.* at 146.
- (17) *Id.* at 156~57.
- (18) *Id.* at 162~64.
- (19) *Id.* at 169.
- (20) Green, 8 *Media L. Rep.* (BNA) at J.345.
- (21) Littlewood *supra* note 11, at 181
- (22) Lyle Denniston, 「A Punishing Verdict in Illinois,,」 *Washington Journalism Review*, March 1982, at52.
- (23) Littlewood, *Supra* note 11. at 154(quoting *Post-Kispatch*).
- (24) *Id.* at 154~55.
- (25) 414 F. 2d 324, 1 *Media L. Rep.* (BNA) 1737 (2d Cir, 1969).
- (26) 376 U.S.254 (1964)
- (27) Peter E. Kane, *Errors, Lies, and Libel* 54 (1992).Errors, Lies, and Libel offers a thoughtful chapter on Goldwater See *id.* at 33 ~59.
- (28) Goldwater, 1 *Media L. Rep.* (BNA) at 1740~41.

- (29) *Id.* at 1742~1743.
- (30) *Id.* at 1738.
- (31) *Id.*
- (32) *Id.* at 1745.
- (33) *Id.* at 1745~1746.
- (34) 388 U.S.130 (1967).
- (35) *Goldwater*, 1 Media L. ReP. (BNA) at 1747~ 1748.
- (36) *Id.* at 1748.
- (37) *Id.*
- (38) *Kane*, *supra* note 27, at 51~52.
- (39) 388 U.S. 130, 1 Media L. Rep. (BNA) 1568(1967)
- (40) 1 Media L. Rep. (BNA) at 1569.
- (41) *Id.* at 1569~1570.
- (42) *Id.* at 1570.
- (43) *Id.* at 1570~1571.
- (44) *Id.* at 1578.
- (45) *Id.*
- (46) 418 U.S.323,1 Media L. Rep.1633(1974).
- (47) *Sanford*, *supra* note 3, at 301.
- (48)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1~14(1995).
- (49)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Gertz* case, see *Elmer Gertz*, *Gertz v. Robert Welch, Inc. : The Story of a Landmark Libel Case* (1992) .
- (50) *Gertz*, 1 Media L. Rep. (BNA) at 1634.
- (51) *Id.*
- (52) *Id.* at 1635.
- (53) 403 U.S.29 (1971).
- (54) *Gertz*,1 Media L. Rep. (BNA) at 1635~36.
- (55) *Id.* at 1644.
- (56) *Id.*
- (57) *Id.* at 1644~1645.
- (58) *Gertz v. Welch*, 8 Media L. Rep. 1769, 1771 (7th Cir. 1982)
- (59) *Bryan A. Gardner*, *A Dictionary of Modern Legal Usage* 331 (1987).
- (60) *Gertz*,8 Media L. Rep. at 1771.
- (61) *Id.* at 1772.
- (62) *Id.* at 1775 (emphasis in original).
- (63) *Id.*
- (64) *Id.* at 1775~ 1776.
- (65) *Id.* at 1777.

- (66) Id. at 1778.
- (67) Gertz, supra note 49, at 208.
- (68) Id. at 210.
- (69) 14 Media L. Rep. (BNA) 1497 (7th Cir. 1987)
- (70) T. Barton Carter et al.,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ourth Estate : The Law of Mass Media* 176(6th ed 1994).
- (71) Brown & Williamson, 14 Media L. Rep. (BNA)at 1499.
- (72) Brown & Williamson, 13 Media L. Rep. (BNA)1263 (N.D. 211. 1986) .
- (73) Brown & Williamson, 14 Media L. Rep. at 1508~9.
- (74) Id. at 1513~ 1514.
- (75) Id. at 1516.
- (76) Id. at 1516~1517.
- (77) 15 Media L. Rep (BNA) 1625 (Pa. 1988).
- (78) See 「Sprague Settles 23-year Battle with Newspapers,」 *Legal Intelligencer*, April 2, 1996, p.1.
- (79) 「News Notes」 , *Media L. Reporter*, April 16,1996.
- (80) John H. Kennedy, 「Libel City」 , *American Journalism Review*, June 1996, at 42.
- (81) Id.
- (82) Sprague v. Walter, 13 Media L. Rep (BNA)1177, 1177 ~ 1178 (Pa. Super. ct. 1986)
- (83) Id. at 1178.
- (84) Id.
- (85) Kennedy, supra note 80, at 43.
- (86) Sprague, 13 Media L. Rep. (BNA) at 1178
- (87) Id. at 1182 (citations omitted) .
- (88) Id.
- (89) See Sprague v. Walter, 15 Media L. Rep (BNA)1625 (Pa. 1988) .
- (90) Kennedy, supra note 80, at 43.
- (91) Michael A. Riccardi, 「Supreme Court Refuses to Hear Inquirer Appeal ; Sprague's \$24 Million Award Stands」 , *Legal Intelligencer*, January 12, 1996, p.1.
- (92) Kennedy, supra note 80, at 43.
- (93) Gertz, 477 U.S. at 257.
- (94) Martin London, 「The 'Muzzled Media': Constitutional Crisis or Product Liability Scam?」 , in London& Dill, supra note 4, at 26.

□ 미 남일리노이대 대학원(언론법 박사)  
□ 미국신문학회(AEJMC) 및 국제언론학회(ICA) 언론법 회장 역임  
□ 저서 : Press Law in South Korea 외 미, 영 등의 언론 및 법률 학술지에 다수 논문기고

□ 현재 미 애리조나주립대 월터크롱카이터 신문대학 언론법 교수